

CEO 동경

오만 교통통신부장관 환담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9일 방한중인 알 푸타이시 오만 교통통신부장관 등 오만 방한단 일행과 면담을 갖고, 현재 오만에서 추진중인 '오만 국유철도 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12 춘계학술대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한국철도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2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효과, 철도운영 합리화 필요성, 철도학회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차세대 고속열차 HEMU 출고식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중앙역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 제작된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출고식에 참석, "430km/h의 차세대 고속열차는 앞으로 전국 주요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 확대에 큰 기여할 것" 이라고 시승 소감을 밝혔다.

공단, 한국교통대학교와 협약 체결

-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상호 협력키로 -



공단은 지난 21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교통대학교와 인력 및 지식·기술의 상호교류, 철도산업에 대한 공동연구, 철도 전문인력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산학협력 체결식에는 김광재 공단 이사장과 장병집 한국교통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단은 2004년도 설립 이후 금번 한국교통대를 비롯하여 서울과학기술대, 충남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대, 우송대 등 국내대학과 철도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철도기술력 향상 및 철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분당선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9일 오후 개통 구간인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건설현장을 방문, 마무리 공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김 이사장은 분당선 취약개소인 동부간선도로 하부통과구간은 개통공기 목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청담역 Paid Zone 임대선점 등 역사에서는 수입 창출을 위한 빈 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2.10월 최고의 품질로 국민과의 개통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본 사업구간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구간의 원상복구를 개통시기보다 더 앞당겨 완료함으로써 도로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시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 건설근로자를 격려했다. (수도권본부 정영규 기자)

공단, 인니 등 4개국 철도공무원 초형 연수

- 해외철도 네트워크 강화로 신규사업 수주 기대 -

공단은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캄보디아와 네 팔 4개국 철도공무원 약 50여명을 5월부터 11월까지 각 국별로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연수는 철도건설 타당성조사사업 PMC용역(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관리 자문) 등 3개 사업과 네 팔철도건설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철도전문지식과 우리 철도산업실태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5월 인도네시아 15명을 시작으로, 6월에 네 팔 11명, 파라과이 16명에 이어 9월경에 캄보디아 12명이 대상이다. 주요내용은 철도건설 사업관리시스템, 철도사업개발 등의 이론교육 외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현장, 열차관제센터, 궤도장비·분기기공장 등 현장견학, 현대로템 창원공장, 서울메트로 방문 등 산업시찰로 한국의 선진 철도기술을 소개하는 외에 특히 철도공단 직원 가정방문,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발전성과 문화를 홍보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해외초청 연수사업에 참여하는 관련국 공무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국가가 발주하는 철도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말했다.

해외 철도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개요

대상국가	연수사업비	교육인원 및 기간	시행시기	비고(발주처)
인도네시아	81백만원	15명 10일	5.21~5.30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라과이	142백만원	15명 14일	6.2~6.17	
캄보디아	158백만원	단기: 10명 14일 장기: 2명 90일	단기: 9월중 장기: 9~11월중	네 팔 정부
네 팔	50백만원	11명 8일	6월중	

업무 적극성이 낳은 황금알

- 천안아산역사 선하주차장 연7억3300만원 수익창출 -

충청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16일 천안아산역사(KTX) 선하주차장(255면, 12,110㎡)에 대한 계약방법 변경(공개경쟁)을 통한 사용자 선정으로 기존 Korail 수익계약 대비 506% 향상된 연간 7억3300만원의 황금알을 낳는 주차장으로 변신시켰다. 천안아산역 선하주차장은 국토부 업무분장 조정에 의거 Korail에 수익계약으로 하던 것을 지난해 12월 초 국유재산 수익계약 연장불가 통보를 시작으로 사용금지 통보, 2012년 1월 한시적 허가 연장, 3월 Korail에서 철도발전 협의회 업무조정 안전제출에 대한 대응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낳은 땅의 결실로 수입증대와 민원해결(Korail 수익계약 특혜)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김계웅 본부장은 그동안의 'Korail에 수익계약, 사용자' 중심의 재산관리에서 벗어나 공단 직접 자산개발과 공개경쟁 등 계약방법 변경을 통해 국유재산의 수익을 향상시키고 공단 부채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공단 최초로 오송역사내 미사용 무상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취소(920.83㎡) 후 민간에 경쟁입찰로 연간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다. 충청본부 재산관리운영부 직원들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평면적인 수익임대구조(토지임대, 사용료에 한정)에서 직접개발 등 입체적 수익창출로 공단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충청본부 강인수 기자)

